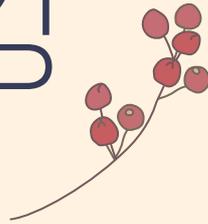


수능
특강



국어
공부의
깊이를
바꾸다.



정철, 「속미인곡」

- 갈래 : 양반가사, 유배가사, 서정가사
- 성격 : 연군가, 애상적
- 제재 : 임에 대한 그리움
- 주제 : 연군지정

#EBS

해제

이 작품은 「사미인곡(思美人曲)」의 속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군(戀君)의 뜻을, 임과 이별한 한 여인의 애달픈 목소리로 노래하여 가사 문학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다. 화자의 독백인 「사미인곡」과는 달리,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체로 진행된다는 점, 한자 속어와 전고(典故)를 배제하고 우리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낸 점, 과장된 정서 표현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진실하게 정서를 절절하게 표현한 점에서 참신성을 엿볼 수 있다. 김만중도 그의 저서 『서포만필』에서 전후(前後)미인곡 중 우리말 구사의 뛰어남과 내용의 간절함을 들어 「속미인곡」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

주제

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 연군의 정

구성

- ▶ 서사: 갑녀의 질문과 임과 이별한 사연을 말하는 을녀
- ▶ 본사: 갑녀의 위로와, 임을 연모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을녀
- ▶ 결사: 을녀의 임에 대한 사모의 정과 갑녀의 조언과 위로



정철, 「속미인곡」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흔더이고

↳ 올녀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 하야 니별(離別) 하고 올녀의 상황

↳ 옥황상제의 궁궐. 임금이 계신 경복궁

히 다 더 저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느고

어와 네 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 갑녀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훈가^마는

엇^단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굳쁘^디 전혀 업서

↳ 다른 생각이

이^리야 교퇴야 어즈^리이 흐듯^썩디

↳ 아양과 응석을 부려 어지^럽게 하여, 올녀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혜여^하니

↳ 생각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뫼기^티 빠혀^시니

↳ 산같이 쌓였^{으니}, 자책^함.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 혜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 서러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

↳ 이별을 조물^주의 탓으로 돌림. 운명^론적 세계^관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긔른 얼굴이 편하^실 적 멧 날일^고

↳ 물 같이 연약^함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 하야 디내^시며

츨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뫼섯^느고

죽조^반(粥早飯) 쥬석(朝夕) 뫼 네와 긔티 세시^는가

↳ 아침^밥 먹기^전에 먹는 죽

↳ 진지

기나^긴 밤의 좁은 엇디 자시^느고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하니

↳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오날^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가

내 므음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눅픈 뫼히 올라^가니

구름은 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 인을 뫼보^게 하는 장애^물, 간신^들을 상징

산천(山川)이 어둑^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 임금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브라^보라

츨하^리 물기^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데^{이고}

↳ 임에게 다가^가지 뫼하^게 하는 장애^물 ↳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샤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느고

↳ 화자의 고독^감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욱 아득^하는^데이고

↳ 님 계신 곳



정철, 「속미인곡」

모참(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 초가집의 찬 잠자리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 허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 산을 오르내리며 ↳ 강가를 헤매며 ↳ 방황하니. 입을 만날 수 없어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

저근덧 녁진(力盡) 허야 꽃 즘을 잠간 드니

↳ 잠시동안 힘이 다하여

정성(精誠)이 지극 허야 썸의 님을 보니

↳ 입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옥(玉) 7 툰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 숨 슬 꺾 장 숯 자 허니

↳ 실컷 아뢰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 숨인들 어이 허며

↳ 눈물이 흘러 말을 하지 못함

정(情)을 못다 허야 목이조차 메여 허니

↳ 반가워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함

오던된 계성(鷄聲)의 좁은 엇디 씨뚫던고

↳ 방정맞은 ↳ 닭이 우는 소리. 꿈에서 깨게 만들

어와 허수(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썸이로다

↳ 외로움 강조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 입을 멀리서 바라봄. 시각적 이미지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 꺾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 촉각적 이미지감염의 말

↳ 입에게 접촉하여 입을 적실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

#작품의 특징

-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된 가사 작품이다.
- 우리말로 구성되어 가사 문학의 극치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
- 자연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
- 일정한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해 리듬감을 형성



정인보, 「자모사」

- 갈래 : 현대 시조, 40수로 된 장별 배행 연시조
- 성격 : 주정적, 회고적, 민족적, 추모적, 의고적
- 제재 : 어머니
- 주제 : 어머니의 자애와 희생에 대한 회고와 그리움
- 자모사의 배경 :
작자에게는 생모(生母-대구 서씨)와 양모(養母-양자로 간 집, 월성 이씨)의 두 어머니가 계셨는데 두 어머니가 다 덕이 높고 자애로웠다 고 한다.
이 시조는 두 분이 다 돌아가신 후에 쓴 작품이며, 이 시조에서 읊어지는 어머니는 그 중 어느 한 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느 분이나 생각나는 대로 한 수씩 지어 나간 것이다.

#EBS

해제

이 작품은 전체 40수의 연시조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을 지은 정인보는 한민족이 주체가 되는 민족주의적 사관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역사학자로서 예스럽고 전아한 표현으로 자신의 고결한 생활 감정을 내면화한 글을 주로 남겼다. 그가 남긴 작품에는 섬세하고 인간적인 정감이 전아한 언어 속에 잘 녹아 있으며, 특히 시어에서 옛말을 현대어로 풀어 쓴 기교가 두드러진다. 정인보는 이 작품의 서문에 “옛날 어떤 효자는 서러우면 통소를 붙어 통소 속에 피가 몹시 나더라는데, 내 이 시조는 설움도 얼마 보이지 못하였거니 피 한 방울인들 묻었으리요마는, 효도야 못 하였을망정 설움은 설움이다.”라고 하여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효도를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회한을 고백하였다.

주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고하며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구성

- ▶ 제 1 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길러 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함.
- ▶ 제 2 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회고와 그 은혜에 감사함.
- ▶ 제 12 수: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한
- ▶ 제 16 수: 부재하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무덤 속에 계신 어머니를 걱정함.
- ▶ 제 40 수: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정성이 부족함에 대한 한탄



정인보, 「자모사」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불고 잎 드는데

↳ 계절의 순환

가신 님 어이하여 돌오실 줄 모르는가

↳ 어머니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옷 품 준 줄 아소서

<제1수>

↳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

부른 배 골리보고 나온 얼굴 병만 여겨

하루도 열두 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 하루 열두 때

밤송인 쪽으령*인 채 그지 달려 샅내다

<제2수>

『바릿밥* 남 주시고 잡숫느니 찬 것이며

↳ 남: 자식, 따뜻한 밥은 자식을 주시고 찬밥은 어머니가 드심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얇은 옷을

↳ 자식들은 따뜻하게 입히고 어머니는 얇은 옷을 입으심

숨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어라』

<제12수>

『: 희생과 헌신의 어머니, 검소한 어머니(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 제시)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 님이 계시운 듯

↳ 돌아가신 어머니

달힌 창 바빠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고

산 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 하울고

<제16수>

↳ 어머니의 산소가 있는 곳

『설워라 설워라해도 아들도 탄 몸이라

↳ 아버지의 사랑이 자식의 어버이에 대한 사랑보다 크다

무덤풀 옥은* 오늘 이 살붙어 있던 말가

↳ 어머니의 무덤에 풀이 우거진 날까지 자신은 잘 살고 있음.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책.

빈 말로 설운 양함을 뉘나 민지 마옵소』

<제40수>

↳ 슬퍼하는 것이 거짓이니 자신의 효성을 민지말라고 함. (효성이 부족함을 표현)

『: 전체를 요약하는 성격의 장, 어머니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식으로서의 회한을 노래(풍수지탄)

*밤송인 쪽으령: 우리 속담에 '쪽으령밤송이 삼 년 간다'는 말이 있음. 병이 많은 사람이 그대로 목숨을 이어 가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임.

*바릿밥: 여자의 밥그릇에 담긴 밥으로, 어머니 몫의 더운밥을 뜻함.

*보공: 관 속에 시신을 놓힌 다음 관의 빈 곳을 채우는 물건.

*옥은: 우거진.

#작품의 특징

- 섬세하고 인간적인 정감을 예스런 언어로 표현함
- 어머니의 사랑을 사물을 통해서 드러냄
- 속담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나타냄
- 평시조의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 현대어로 씀



김광옥, 「율리유곡」

- 갈래 : 17수의 연시조
- 성격 : 전원적, 탈속적
- 제재 : 전원에서 보내는 소박한 삶
- 주제 : 전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

#EBS

해제

이 작품은 인목 대비 폐모론으로 삭탈관직된 작가가 인조반정으로 재출사할 때까지 약 8년 동안 한양 인근 지역인 율리에 머물면서 창작한 전체 17곡의 연시조로 『진본 청구영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당대의 작품들이 정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이나 시름 등을 노래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

구성

- ▶ 제 1 곡: 자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
- ▶ 제 2 곡: 속세와 단절하여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 ▶ 제 5 곡: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
- ▶ 제 6 곡: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
- ▶ 제 9 곡: 자연에서 즐기는 유유자적한 삶
- ▶ 제 14 곡: 자연을 뒤로해야 하는 아쉬움
- ▶ 제 17 곡: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

#작품의 특징

- 중국의 도연명(陶淵明)을 사모하여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잊고 자연에 묻혀 몰아(沒我)의 경지를 즐기는 내용을 표현
- 도연명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 제1수부터 소박한 전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
- 설의법을 이용하여 의미를 강조함
-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해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드러냄



김광옥, 「율리유곡」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단 말이

↳ 중국 진나라의 시인

밤마을 옛 일흔이 마초아 곱틀시고

↳ 옛날 도연명이 살던 마을 이름도 율리

도로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기오 내오 다르랴 - 그와 내가 다르겠느냐 <제1곡>

↳ '어리석음을 지켜 전원으로 돌아옴' 도연명의 <귀전원거>라는 작품의 한 구절.

『공명(功名)도 잊었노라 부귀(富貴)도 잊었노라

↳ 모조리

세상 번우한 일 다 주 어 잊었노라

↳ 번거롭고 시름겨운

내 몸을 내마져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제2곡>

『: 점층법과 반복법

질가마 조히 씻고 바위 아래 시 물 길어

↳ 화자의 소박한 삶①

팔죽 달게 썬고 저리집치* 끄어내니

↳ 화자의 소박한 삶② ↳ 화자의 소박한 삶③ 절인 김치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 흐노라 <제5곡>

↳ 팔죽과 절이 김치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논고나

↳ 세상의 욕망을 쫓는 권세가들

갈대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 현실 정치세계 ↳ 힘이 없는 세력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제6곡>

↳ 세속에 대한 욕심 ↳ 은거

추강(秋江) 밝은 달에 일엽주(一葉舟) 혼자 저어

↳ 조각배

남대를 떨쳐 드니 자는 백구(白鷗) 다 놀란다

어디서 일성어적(一聲漁笛)은 조차 흥(興)을 돋나니 <제9곡>

↳ 한줄기 피리소리, 화자의 흥을 표현하는 청각적 이미지.

↳ 황하는 강물에 황토가 섞이어 평소에는 늘 누런 빛을 띄고 있지만

황하수(黃河水) 뭍다더니 성인(聖人)이 나시도다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지는데 그 때 성군이 난다고 한다.

초야(草野) 군현(群賢)이 다 이러나단 말가 화자는 자신이 세상에 나갈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현실로 복귀하려고 함.

어즈버 강산 풍월을 놀을 주고 가거니 <제14곡>

↳ 나이가 같은 사람

최 행수(崔行首) 썩달임하세 조 동갑(趙同甲) 꽃달임하세

↳ 무리의 윗사람 ↳ 썩으로 전을 부치며 노는 놀이 ↳ 꽃으로 전을 부치며 노는 놀이

닭찜 게찜 올벼 점심 내 아무조록 담당함세

↳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

매일에 이렇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이와 같이 살면

*수졸전원: 전원에서 옹졸하게 살아감.

*저리집치 끄어내니: 절인 김치를 끄집어내



유리왕, 「황조가」

- 갈래 : 한역가, 개인적 서정시, 4언 4구의 한역시가
- 성격 : 우의적
- 제재 : 꾀꼬리
- 주제 : 사랑하던 짝을 잃은 외로움과 슬픔

꾀꼬리는 오락가락

↳ 자신의 처지와 대조되는 존재로
실연의 슬픔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翩翩黃鳥 (편편황조)』

↳ 펄펄 날아 다니는 꾀꼬리의 모습.

『』: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조에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서정적 자아의 외로운 모습과 대비됨. 의태법

雌雄相依 (자웅상의)

↳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고독하고 슬픈 정서를 환기. 1~2구는 노래의 배경이 됨

念我之獨 (염아지독)

↳ ‘獨(독)’은 입을 여윈 서정적 자아의 심정이 집약된 단어.

시상이 객관적 상관물인 꾀꼬리에서 서정적 자아로 바뀌게 됨

誰其與歸 (수기여귀)

↳ 외로움에서 오는 슬픔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구절

#작품의 특징

- <황조가>는 현전하는 고구려의 최고(最古)의 서정시
- 집단 가요의 단계를 넘어 개인 창작시로 이행한 시기의 노래
- 노래의 짜임은 극히 단순하나 완벽한 대칭 구조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 개인의 감정을 꾀꼬리라는 자연물에 이입시켜 표현함
- 자연물을 빌려 우의적(友誼的)으로 표현하고 대조, 의태가 드러남
- <황조가>의 서정의 정서는 고려가요의 <서경별곡>이나 <가시리> 등에 계승되고, 소월의 <진달래꽃>에 계승



작자미상, 「만전춘별사」

- 갈래 : 전 13연의 달거리 노래
- 성격 : 향락적, 퇴폐적
- 주제 : 임에 대한 송도(頌禱)와 연모(戀慕)

뒤척뒤척 외로운 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어느=부사. '오지 않는다'는 설의적 표현

서창을 열어 보니 도화(桃花)가 피었도다

도화는 시름없어 봄바람에 웃는도다 봄바람에 웃는도다

↳대비→ 화자의 내면 심리(고독과 근심)를 심화<황조가의 꾀꼬리와 같은 역할>

시적화자→ 임과 이별후 외로움과 근심에 휩싸임

도화→ 아무런 근심없이 봄날의 즐거움을 만끽

복숭아꽃이 봄바람에 웃는다는 표현은 문학적으로 뛰어난 표현이며 마치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을 비웃는 듯한 느낌

#작품의 특징

- 비유와 상징, 반어와 역설, 감각적인 언어로 감정의 표현이 진솔
- 4음보의 형식을 갖추
- 남녀 간의 애정을 가식 없이 진솔하고도 적나라하게 표현
- 창 밖의 도화에다 자기 처지를 견주기 위해 상투적인 한자어 사용



작자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해학적, 과장적
- 제재 : 임, 주추리 삼대
- 주제 :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인용 작품 해설

해제

「임이 오마 하거늘 ~」: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서, 임을 만나러 가는 화자의 거침없는 행동을 사실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화자는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다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멋쩍어하고 있다.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노래임

「문지방, 금기시 되어 있는 문지방을 밟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임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 강조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우회 치드라 안자』 이수로 가액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년산 바라보니 거머횃들 셔 잇거늘 저야 님

↳ 중문은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를 지나 간다는 것은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들뜬 마음 강조

↳ 검은 색과 흰색이 뒤섞여 보이는

『: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됨

모양으로 화자가 임으로

착각하는 소재

↳ 의태어, 옆치락 뒤치락 급히 구는 모양

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존 디 므른 디 곱히지 말고 워령총창* 건

↳ 옷차림과 태도를 항상 정숙하게 해야 한다는

↳ 의태어, 허둥지둥하는 모양

↳ 의성어,

사고방식을 가진 시대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급히 달리는 발소리 (정숙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임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남

강조하여 큰 소리를 내는 것을 금기시하던 때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입을 열른 만나 이야기 하고 싶다는 욕망이 규범을 앞서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

너가서 정(情)엿 말 하려 하고 젓눈을 흘깃 보니 상년 칠월 열사흔날 곱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로 날 소겨다

↳ 작년

↳ 삼의 줄기,

↳ 반어법, 알뜰히도

화자가 임으로 착각한 사물

모쳐라 밤일식만정 hing여 낮이런들 놈 우일 번하과라

↳ 종장의 처음보 3음절 고정

↳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기보다는 멋쩍어 하면서 이 작품의 해학적인 특성을 보여줌

*이수로 가액하고: 손을 이마에 대고.

*워령총창: 급히 달리는 발소리.

*주추리 삼대: 씨를 받느라고 껍질을 벗겨 세워 둔 삼의 줄기.

#작품의 특징

- 의태어와 의성어 사용으로 생동감 부여
- 그리운 임을 빨리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
- 자연물인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냄
- 사설시조의 주 향유층인 서민들의 감정이 진솔하게 드러남
- 과장된 표현으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표현
- 반어적 표현으로 화자의 행동을 과장하여 표현



작자미상, 「세상 사람들이 ~」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유희적, 향락적
- 제재 :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
- 주제 :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권함

인용 작품 해설

- ▶ 「세상 사람들이 ~」: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서, ‘먹고 놀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석송’과 중국의 전설적인 애주가인 ‘유령’을 근거로 하여 인생무상에 대해 설파하면서 향락주의적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둘만 여겨 두고 또 두고 먹고 놀 줄 모르는고

↳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

먹고 놀 줄 모르거던 죽을 줄 알라마는 석송(石崇)이 죽어 갈 적 누거만재(累巨萬財) 가져가며 유령(劉伶)의 무덤 위에 어느 술이 이르렀더니

↳ 중국 역사상 가장 이름난 거부 ↳ 아주 많은 재산(財産)이나 재물(財物) ↳ 중국의 전설적인 애주가

하물며 청춘 일장몽(一場夢)에 백화난만(百花爛漫)하니 이같이 좋은 때에 아니 놀고 어이하리

↳ 온갖 꽃이 활짝 피 아름답고 흐드러짐.

↳ 향락주의적 삶의 태도

#작품의 특징

- 역사적인 인물을 인용하여 주장을 펼침
- 향락주의를 설파
- 개인적 삶에 가치를 두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



작자미상, 「한숨아 세한숨아 ~」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해학적, 수심가
- 제재 : 한숨
- 주제 : 그칠 줄 모르는 삶의 시름

#EBS

해제

이 작품은 깊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한숨은 마음에 맺힌 것이 있을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한숨을 마치 바람이나 다른 무엇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 한숨을 막으려고 한다. 중장에서 다양한 잠금 장치를 길게 나열하면서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진지하게 시도하는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슬픔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한국 민중 문학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주제

깊은 시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

구성

- ▶ 초장: 한숨(근심, 걱정)이 자꾸 마음속으로 들어옴.
- ▶ 중장: 들어오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을 해도 계속 들어오는 한숨
- ▶ 종장: 한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

한숨아 세 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 가느다란

고미장지* 세살장지* 가로달이 여달이에 암돌찌귀 수돌찌귀 배목걸쇠 똑닥 박고 용거복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병풍

↳ 문의 종류

↳ 문고리 거는 쇠

↳ 깊이깊이

(屏風)이라 덜걱 접은 족자(簇子)이라 데데굴 만다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 한숨을 막기 위해 병풍도 치고, 족자도 걸었지만 한숨이 병풍은 접고, 족자는 말아버린 다음에 들어온다.

『: 초장의 구문을 반복. 통사구문의 반복: 화자의 정서 부각 / 운율감 형성 / 구조적 안정감 형성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 한숨 (근심, 걱정)

*고미장지: 고미다락의 장지문.

*세살장지: 문살이 가는 장지문.

#작품의 특징

- 삶의 고뇌와 시름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한숨’을 의인화하여 작중 청자로 설정
-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해학적으로 표현
-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속 근심을 마치 살아 움직여서 눈에 보이는 대상인 것처럼 형상화 (관념의 구체화)
- 한숨은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화자는 한숨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음(발상의 전환)



작자미상,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직설적
- 제재 : 길쌈
- 주제 : 오래 살고 싶은 소망, 임과의 사랑의 지속

#EBS

해제

이 작품은 모시 삼기라는 여성의 노동을 소재로 사용해 임과의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여성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임과의 사랑을 모시실에 빚대어 모시실이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있듯이 임과의 사랑도 끊어지면 다시 잇겠다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사랑을 향한 적극적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임과의 사랑을 오래 이어 가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

구성

- ▶ 초장: 모시실을 삼음.
- ▶ 중장: 모시실을 삼다가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있음.
- ▶ 종장: 임과의 사랑도 끊어지게 되면 모시실처럼 다시 이을 것임.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바깥편으로 밀면서 삼는 것 ↙ 자기 몸편으로 당기면서 삼는 것

가다가 한가운데 뚝 끊어지었거늘 호치단순(皓齒丹脣)으로 흠빨며* 감빨아* 섬섬옥수(纖纖玉手)로 두 끝 마주 잡아 비부쳐*
 ↳ 흰 이와 붉은 입술. 미인을 뜻함 ↳ 가늘고 흰 손

이오리라 저 모시를』. 모시 삼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 (삼던 모시가 끊어짐 → 끊어진 모시를 흠빨고 감빨음 → 끊어진 실의 두 끝을 비벼서 붙임)

↳ 도치법

우리도 사랑 끊어져 갈 제 모시같이 이오리라

↳ 화자는 끊어진 모시실과 끊어진 사랑 사이의 상호 유사성에 착안한 유추적 사고를 발휘

- *흠빨며: 흠뻑 빨며.
- *감빨아: 이로 감아 빨아.
- *비부쳐: 비벼서.

#작품의 특징

- 장수(長壽)에 대한 소망을 한없이 이어지는 실에 비유하여 형상화
- 모시 삼는 과정을 시각적·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감각적으로 묘사
- 진솔하고 직선적인 당대 평민들의 사고 방식을 가장 잘 반영
- 열거법과 도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냄



작자미상, 「시어머님 며늘아기 나빠 ~」

- 갈래 : 사설시조, 원부가(怨婦歌)
- 성격 : 비판적, 해학적
- 제재 : 시집살이
- 주제 : 시집살이의 어려움, 며느리를 구박하는 세태 비판

#EBS

해제

이 작품은 대가족 제도에서 겪는 며느리의 맏고 고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일상적인 소재를 동원하여 소박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농촌의 실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동원한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왜곡된 가정생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해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

구성

- ▶ 초장: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당부
- ▶ 중장: 시댁 식구들의 모난 성격과 구박상
- ▶ 종장: 말없이 시집살이를 감내하고 있는 며느리의 항변

시어머님 며늘아기 나빠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 부족하다 생각하여 ↳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당부

빛에 받은 며느리가 값에 쳐 온 며느리가 밤나무 『썩은 등걸에 휘초리*나 같이 알살피신* 시아버님』 『별찢 쇠똥같이 되종고신*』
↳ 무슨 물건 값으로 데려온 『: 매서움 ↳ 햇볕에 찢

시어머님 삼 년(三年) 결은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뽀족하신 시누이님』 당피* 간밭에 돌피* 난 것같이 『셋노란 외꽃* 같은 『: 까다로움 ↳ 삼년이나 걸려 찢 『: 날카로움 ↳ ‘당(唐)’은 중국을 뜻하며, 외래품의 좋은 물건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 남편, 너무 어려서 사내 구실을 하지 못함을 풍자 『: 허약함

건* 밭에 매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 하시는고 - 설의법

↳ 볼품없고 병약한 시댁 식구들과는 달리 생기넘치고 아름다운 며느리의 모습을 대비시킴

- *휘초리: 휘초리. 가는 나뭇가지.
- *알살피신: 양상곳은. 살이 빠져서 뼈만 남을 만큼 매우 바짝 마른.
- *되종고신: 말라빠진.
- *당피: 품질 좋은 곡식.
- *돌피: 품질 낮은 곡식.
- *외꽃: 오이꽃.
- *건: 기름진.

#작품의 특징

- 봉건 제도(封建制度)에 있어서 며느리의 위치를 짐작하게 함
- 중심인물인 며느리와 주변 인물(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을 상호 대립적으로 제시
- 대가족 제도에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노래한 것으로, 며느리의 원정(怨情)이 나타남
- ‘구르지 마오’와 같은 명령문, ‘어디를 나빠 하시는고’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
- 일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시댁 식구의 모습을 비유하여 표현의 구체성과 생동감을 부여한다



작자미상,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

- 갈래 : 사설시조
- 성격 : 직설적, 저극적
- 제재 : 매력적인 남성
- 주제 : 매력적인 남자에 대한 호감

#EBS

해제

이 작품은 젊은 남성의 활기찬 모습에 매혹된 여성의 심정과 이성을 향한 마음이 솔직하게 표현된 사설시조이다. 작중 여성 화자는 우연히 흰옷 입은 젊은 남성이 성큼성큼 돌다리를 건너는 활달한 모습에 반하여 그를 자기 서방으로 삼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서방이 될 수 없다면 친구의 임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남성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설시조에서 여성 화자는 기존의 시조에서와 달리 남성의 애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객체적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능동적으로 생성·주도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로 그려진다.

주제

매력적인 남성에 대한 호감

구성

- ▶ 초장: 길에서 매력적인 젊은 남성을 보게 됨.
- ▶ 중장: 돌다리를 활달하게 건너가는 매력적인 저 남성을 내 남편으로 삼고 싶음.
- ▶ 종장: 남편으로 삼을 수 없다면 벗의 임이 되게 하여서라도 계속해 보고 싶음.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잔밧고도* 알미워라 - 알미울 정도로 매력적임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밭 뛰어* 간다 가로* 뛰어 가는고』 어허 내 서방(書房) 삼고라자

『: 젊은 남성의 모습을 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가 지닌 젊음의 생명력을 효과적으로 표현 ↳ 자신의 욕망을 대담하게 표현

진실(眞實)로 내 서방 못 될진데 벗의 남이나 되고라자 - 남의 남편이 되면 그 남성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냄

*잔밧고도: 몹시 알밧고도.

*밭 뛰어: 바빠 뛰어.

*가로: (다리를) 가로질러.

#작품의 특징

- 대상인 남성을 작품의 서두에서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제시함
- 젊은 남성은 여성의 시선에 포착된 매력적인 사람으로, 작품 안에서 시종 여성 화자의 관찰 대상이 되고 있음
- 여성의 시선에서 묘사하며 자신의 욕망을 대담하게 표출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이 제시됨



김상용, 「오륜가(五倫歌)」

- 갈래 : 연시조
- 성격 : 교훈적, 유교적
- 제재 : 오륜
- 주제 : 오륜의 실천 강조

#EBS

해제

이 작품은 유학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 즉 오륜(五倫)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지은 연시조이다. 직설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제

오륜의 실천 강조

구성

- ▶ 제 1 수: 부자지륜(父子之倫)
- ▶ 제 4 수: 장유지륜(長幼之倫) 또는 형제지륜(兄弟之倫)
- ▶ 제 5 수: 봉우지륜(朋友之倫)

아버이 자식(子息) 스이 하늘 삼긴 지친(至親)이라
↳ 하늘이 만든 ↳ 지극히 가까운 사이

부모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오조(烏鳥)도 반포(反哺)*를 하니』 부모 효도 하여라 <제1수>
『: 까마귀도 아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 부모를 봉양하는 일의 당위성

형제(兄弟) 두 몸이나 일기(一氣)로 논화시니
↳ 한 부모의 정기
 인간(人間)의 귀(貴)한 거시 이 외(外)에 또 잇는가
↳ 한 부모의 정기에서 나누어진 것
 『갑 주고 못 어들 거순』 이 썩인가 흐노라 <제4수>
↳ 값 돈 ↳ 형제간의 우애
 『: 형제간 우애의 중요성

벗을 사귀오디 처음의 삼가하여
↳ 벗을 사귀되 처음에 경계하여
 날도곤 나으 니로 곱히여 사귀여라
↳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 가려서 사귀어라
 종시(終始)히 신의(信義)를 닦히여 『구이경지(久而敬之)*』 하여라 <제5수>
↳ 처음부터 끝까지 ↳ 지켜 『: 사람을 사귄 지 오래되어도恭敬(공경)으로 대한다(공자의 말) : 벗을 공경하는 태도의 중요성

*오조도 반포: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아버지에게 먹이를 먹여 준다는 뜻으로,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함을 이르는 말.
 *구이경지: 오래도록 공경함.

#작품의 특징

- 오륜(五倫)의 다섯 덕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교훈적인 노래
- 오륜(五倫)을 주제로 한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상대를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냄



작자 미상, 「우부가(愚夫歌)」

- 갈래 : 서사 가사
- 성격 : 교훈적, 풍자적, 경세적, 비판적
- 제재 : 경제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성
- 주제 :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난과 경계

#EBS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양반 사회가 당면했던 도덕적 타락, 경제적 몰락, 봉건적 가치관의 붕괴 등을 풍자적으로 담아낸 가사이다. 세 명의 어리석은 남자인 ‘개똥이’, ‘꿈생원’, ‘평생원’을 등장시켜 무위도식하거나 분별없이 행동하고 체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등을 묘사하여 조선 후기 양반층의 타락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타락한 양반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경계

구성

- ▶ 서사: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평
- ▶ 본사: 인물의 도덕적 타락상 열거
- ▶ 결사: 인물의 패가망신한 모습 제시

#작품의 특징

- 어리석은 양반인 ‘개똥이’의 잘못된 행위를 나열하며 양반들의 타락한 행위를 비판하고, 이를 경계할 것을 강조
- 조선 후기 양반층의 도덕적 타락을 사실적으로 반영



황진이, 「동짓달 지나긴 밤을」

- 갈래 : 시조
- 성격 : 감상적. 애상적
- 제재 : 동짓달의 밤
-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EBS

해제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고 있다.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음성 상징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등의 기법을 통해 임에 대한 애뜻한 기다림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어 조선 전기 시조 중 연정가(戀情歌)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임이 부재하는 동짓달 밤이라는 부정적 시간을 단축하여 긍정적 시간인 임이 오는 날 밤을 연장하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한 기다림

구성

- ▶ 초장: 동짓달 지나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냄.
- ▶ 중장: 베어 낸 시간을 춘풍 이불 아래 넣어 둠.
- ▶ 종장: 임이 돌아오는 날, 베어 둔 시간을 펼치고 싶음.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 내어

↳ 음력 11월 ↳ 홀로있는 시간
(밤이 가장 긴 달) ↳ 동그렇게 포개어 차곡차곡 쌓음. 음성상징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 봄바람처럼 따스함이 느껴지는 이불 혹은 봄이 되면 찾아올 임과 함께 덮을 이불
↳ 임과 함께하는 시간(↔동짓달 지나긴 밤)

『어른 님 오신 날 밤 이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 사랑하는 임 ↳ 굵이굵이 음성상징어, 임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임과 오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냄

- 베어내어, 넣었다가, 퍼리라: 모두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형상화함)

#작품의 특징

-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애뜻한 기다림을 노래한 호소력 깊은 시조이다.
- 추상적인 시간을 마치 마음대로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물인 양 표현하고 있다.
- 음성상징어, 대조법 등의 기법과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연정가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진다.
- 긴 겨울밤과 임과 함께 하는 짧은 '봄밤'을 서로 대조시켜 임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다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냄
- '서리서리'나 '구비구비'와 같은 음성상징어(의태어)를 사용해 특유의 섬세한 감각을 표현



김천택, 「백구야 말 물어보자 ~」

- 갈래 : 평시조, 단시조
- 성격 : 한정가
- 제재 : 갈매기, 자연과의 화합
- 주제 : 자연에 몰입을 소망

#EBS

해제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지내려는 화자의 마음을 갈매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

구성

- ▶ 초장: 갈매기에게 말을 걸.
- ▶ 중장: 갈매기에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물어봄.
- ▶ 종장: 갈매기와 함께 자연에서 살고 싶어 함.

백구(白鷗)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 갈매기, 표면적인 청자 ↳ 화자가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명구승지(名區勝地)*를 어디어디 벌였더냐 - 두었더냐

↳ 향유의 대상이 되는 자연으로 화자에게 심미적 감상의 대상

날더러 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리라

↳ 나에게 ↳ 말하여 주면 ↳ 거기, 그 곳 (명구승지)

*명구승지: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작품의 특징

- 화자는 현실을 떠나 자연과 더불어 즐겁게 노닐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자연과의 화합과 몰입을 희구하는 상황



김진형, 「복천가」

- 갈래 : 유배 가사
- 성격 : 기행문적, 체험적
- 제재 : 칠보산
- 주제 : 유배지에서 느끼는 감정

#EBS

해제

이 작품은 반대파의 모함에 의해 한양을 떠나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를 가게 된 작가가 유배 생활에서 체험한 견문과 여정을 노래한 장편 유배 가사이다. 작가는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내력과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유배지에서의 풍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노래하고 있는데,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인 묘사와 서술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록 부분에는 북관(北關)에 있는 칠보산을 유람하게 된 계기와 칠보산 관람의 견문과 감상 등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유배지에서의 풍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구성

- ▶ 서사: 유배를 가게 된 계기와 심정
- ▶ 본사 1: 한양에서 북관까지의 유배 여정
- ▶ 본사 2: 북관에서 칠보산 유람(수록 부분)
- ▶ 본사 3: 북관에서 명천까지의 유배 여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 ▶ 본사 4: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에 돌아와 가족과 재회한 기쁨
- ▶ 결사: 유배 생활에 대한 평가와 자기 위로



김진형, 「복천가」

본관이 흐는 마리 이곳의 칠보산은

북관 중 명승지(名勝地)라 금강산과 갖치 치니 - 견줄 만큼 아름다우니

칠보산 한번 가서 방슈심산(訪水尋山) 엇더 흔고

↳ 깊은산을 찾아가서 구경함

나도 역시 조커니와 의리에 난처 하다 - 도리에 난처하다(유배생활중) 유배당한 선비로서의 체면과 다른 이들의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

원지(遠地)에 쫓긴 몸이 형승의 노논 일이

↳ 멀리 떨어진 곳. 유배지 ① ↳ 지세나 경치가 빼어난 곳

분의*에 미안 흔고 첨령(瞻聆)*의 괴이(怪異) 하니

모음의 조건 마는 못 가기로 작성 하니

↳ 마음에는 가고싶으나

주슈(主首)의 흐는 마리 그러치 아니 하다

↳ 주인, 북관 수령

악양루 황강경(黃岡景)은 왕등의 수적 이오*

적벽강 제적(在謫) 놀음 구소의 풍정 이니 - 즐겼던 풍류

↳ 김학사= 김진형, 작자 본인 ↳ 구양수와 소동파

김학스 칠보산의 무슨 힘이 잇스리 오

그 말을 반겨 듯고 황연 이 이러 느 셔

↳ 황현히, 반갑게

나귀에 술을 신고 칠보산 드리 가 니

구름 갖 흔 천만 봉이 화도강산 광경 이라

↳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치

(중략)

이 몸이 이른 고지 신선의 지경(地境) 이라

↳ 신선들이 사는 곳

『전상의 연분으로 경구(經句)의 자취(自取) 하여』 『신선들은 옥황상제 앞에서 경전(경구)를 읽는데

↳ 스스로를 신선에 비유 ↳ 신선들이 읽는 경전

이를 잘못 읽을 경우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인해 지상으로 떨어지게 됨

바람의 붓 다시 이 광경 보 깃 고 나

연적 봉 지는 후(後)의 선녀를 따 라 가 니

연화 봉 절 바 회는 청천(靑天)의 소 스 있 고

비 바 회 서 책 봉(書冊峯)은 안 전의 버 러 있 고 - 눈 앞에 펼 쳐 져 있 다

심 향 봉 보 슬 봉은 신선의 굴 혈 이라

↳ 신선들이 사는 동굴

『미 향은 술을 들 고 만 장 운 한 곡 조 요

군 순 월 안 즌 거 동(擧動) 아 조 분 명 꽃 치 로 다』 『매 향의 노 래와 군 산 월의 거 문 고 연 주를 들 으며 칠 보 산의 풍 경을 즐 기는 모 습.

↳ 꽃과 같이 아름답다 ↳ 작자의 유배생활 과시

오 동 복 판 거 문 고의 금 스로 줄을 매 와

↳ 비단실

디 쪽으로 타 는 양이 거 동도 꼭 거 니 와

섬 섬(纖纖) 한 손 길 끗 히 오 식이 영 농 하 다

↳ 섬섬옥수(纖纖玉手)

네 거 동 보 고 느 니 군 명(君命)이 엄(嚴) 하 여 도 반 할 번 하 고 느 니 - 반 할 뿐 하 겠 구 나. 군 산 월의 아 름 다 움을 강 조.

↳ 임금의 명령

당 대 사 대 부 들이 화 자의 유 배 생 활을 비 난 할 수 있 는 이 유

영 웅 절 스(英雄節士) 엽 단 말은 사 칙(史冊)에 잇 는 니 라

↳ 영웅이면서 절개를 지키는 선비 ↳ 역사책

니 마 암 단 단 하 나 네 게 야 큰 말 하 라

본 거 시 큰 병(病)이 요 안 본 거 시 약(藥)이 런 가

이 천 리 절 시(絶塞) 중의 단 정이 몸 가 지 고

↳ 이천 리 밖 변방. 자신의 유배지 ②.

거 적(居謫)을 잘 하 는 거 시 아 조 모 도 네 덕(德)이라



김진형, 「복천가」

양금을 파흔 후의 절집의 노력오니

↳ 연주 듣기를 마친 후

산승(山僧)의 촌물 보소 정결하고 향기 있다

↳ 절에서 먹는 음식과 차 ↳ 두 기생과 함께 칠보산을 유람하고 온 여운이 아직 화자의 마음속에 남아 있음

이튿날 도라오니 호상대 노든 일이

↳ 매향과 군산월과 함께 칠보산을 갔던 일

전칭인가 몽중인가 국은(國恩)인가 천은(天恩)인가

천애(天涯)에 이 헝긱이 이럴 줄 아라던가

↳ 까마득하게 멀는 있는곳. 유배지③

흥진하여 도라와서 슈노(首奴)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시는 본관이 보니기로

『기싱을 다려스나 도라와 생각하니 호화한중(豪華閑中) 불안하다

↳ 기생과 함께했으니

↳ 유배지에서 호화롭게 지내는 것

다시는 지휘하여 기싱이 못 오리라』 『: 자신의 풍류생활 반성.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내세우며 자신의 풍류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

선비만 다리고서 시주(詩酒)의 기록하니 - 시를 짓고 술을 마시니

청산이 그림 되야 술잔의 쪼려지고

녹슈는 기리 되야 조희 우희 단청이라

↳ 종이

군순월의 녹의홍상(綠衣紅裳) 씨엿고나 솜이로다 - 깨어보니 꿈이로다

*분의: 자기의 분수에 알맞은 정당한 도리.

*첨령: 보고 들음. 여기서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의미함.

*악양루 황강경은 왕등의 스적이오: 왕등은 왕우와 등자경을 가리킴. 중국의 악양루와 황강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왕우는 황강에 죽무를 지었으며, 등자경은 악양루를 중수하였다고 함.

#작품의 특징

-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 묘사와 서술
- 유배생활에서도 다양하고 이색적인 측면이 있음을 반영(고달픈 유배 생활을 바탕으로한 안조환의 <만언사>와 대비)
- 가사의 형식을 빌린 기행문으로 기행 가사 문학의 빼어난 작품